

신입 호랑이 이범호 화끈한 신고식

LG와 시범경기 첫 출전 2안타에 결승 타점 만점활약

로페즈·윤석민·박경태·손영민 릴레이 호투 2대0 승

신입 호랑이 이범호가 화끈한 신고식을 치렀다.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가 1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3번 타자로 출전해 3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하며 몸을 풀었다.

마운드의 후보 릴레이를 앞세운 KIA는 2-0으로 승리를 거두며 시범경기 전적 2승1패가 됐다.

이범호에게는 이날 경기는 국내 복귀 무대이자 새로운 팀에서의 신고식이었다. 2000년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첫발을 뗀 이범호는 지난해 소프트뱅크를 통해 일본에 진출했었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로 이적한 이범호는 스프링캠프 이후 진행된 4차례의 연습경기와 지난 12·13일 제주도에서 열린 넥센과의

시범경기 개막 2연전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지난 시즌 경기출장수가 적어 타격 벌판 스가 흐트러진데다 스윙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타격을 정교하게 가다듬기 위해 특별 훈련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1년 만에 국내 팬들 앞에 모습을 드리면 이범호는 1회초 1사1루의 상황에서 타석에 섰다. 이범호는 LG 선발 김광삼과의 승부에서 불카운트가 2-1까지 몰렸지만 낮게 들어온 직구를 받아 좌전안타를 만들어내며 3루 주자 신종길을 허우로 불러들였다.

첫 타석에서 타점을 기록한 이범호는 6회 초 세 번째 타석에서는 낮게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뒤려내 2루타를 기록하며 페조의 컨디션을 보여줬다.

‘원투펀치’ 로페즈와 윤석민, 6선발 후보 박경태, 마무리 후보 손영민으로 이어진 투

수진은 5피안타 무실점의 투구로 KIA 마운드의 저력을 보여줬다.

선발로 출격한 로페즈는 4이닝 동안 2피안타 1볼넷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줬다. 스프링캠프에서 한 차례 실전 피칭에 나섰던 로페즈에게는 올 시즌 세 번째 피칭, 최고 구속은 143km에 머물렀지만 위력적인 변화구로 LG타자를 제압했다.

5회 마운드를 넘겨받은 윤석민도 삼자범퇴로 이닝을 종료하면서 올 시즌 전망을 밝혔다.

김희걸·박정태와 함께 6선발 후보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좌완 박경태의 안정적인 투구도 돋보였다.

6회부터 30이닝을 책임진 박경태는 100km 초반의 슬로브로 상대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으며 4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박경태는 8회 심광호에게 내야 안타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오지환의 유격수 앞 땅볼로 더블 플레이를 유도하며 흘드를 기록했다.

‘원투펀치’로페즈와 윤석민, 6선발 후보 박경태, 마무리 후보 손영민으로 이어진 투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이범호가 1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시범경기에서 6회초 1사1루에서 2루타를 때려내고 있다. (KIA 티거즈 제공)

‘원조 괴물’ 류현진 판정승

김광현과 좌완 맞대결

었다.

아직 시범경기였지만 둘은 나란히 최고구속 148km의 빠른 공을 던지며 팽팽한 경쟁을 했다.

나란히 1회 볼넷 1개씩만 내주고 무안타로 마친 둘은 2회부터 회비가 엇갈렸다.

2회초 류현진이 먼저 정상호에게 시속 140km 높은 직구를 던졌다가 왼쪽 펜스를 넘기는 125m짜리 홈런을 얻어맞았다.

2회도 무실점으로 마친 김광현은 3회 선두타자 나성용에게 똑같이 왼쪽 깊숙이 날아가는 커다란 훌런을 허용했다.

이어 오재필에게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얻어맞은 김광현은 백승률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강동우의 땅볼과 정원석의 내야 안타로 2점을 더 내줬다.

류현진은 3회를 삼자 범퇴로 처리하고 마운드를 내려갔고, 김광현은 4회 김용호를 삼진으로 잡아낸 뒤 신경현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하고 민방위 훈련 때문에 15분간 경기 중단되면서 짐 매그레인으로 교체됐다.

한화는 4회와 5회에도 1점씩을 추가해 5회 연속 안타로 1점을 보태는 데 그친 SK에 5-2로 이겼다.

/연합뉴스

박찬호 日 지진 참사에 1000만엔

대한축구협회 수익금 기부

일본 도호쿠(東北)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과 해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일본인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 한국스포츠스타들도 밟았고 나섰다.

1995년부터 4시즌 동안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에서 일본인 스타 노모 히데오(43·은퇴)와 한솔밥을 먹으며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선수로 신경전을 펼쳤던 박찬호(38·オリックス)는 15일 이재민 돕기 위해 써달라며 1000만엔(약 1억4000만원)을 기부했다.

박찬호는 “조금이라도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지성(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최근 설립한 ‘박지성 재단(jis-foundation.org)’ 홈페이지에 ‘일본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라는 위로의 글을 올렸다. 박지성은 명지대를 다니던 2000년 6월에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교토 펠스상가에 입단하면서 처음 프로선수로 데뷔하며 유럽 무대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오전 조중연 회장이 직접 오구라 준지 일본축구협회(JFA) 회장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축구협회는 아울러 2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온두라스와의 평가전 때 양국 선수들이 일본 대지진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 시간을 마련하고, 수익금 일부를 지진 피해 돕기 성금으로 일본축구협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성금 규모는 입장 수입의 20~25% 선인 3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동일전자정보고 사이클 등 7개팀 창단

동일전자정보고(교장 오인수)가 사이클·세팍타크로·스쿼시·우슈쿵푸팀을 창단했다.

동일전자정보고가 15일 교내 닥목체육관에서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부회장, 조용조 광주스퀘시언밍회장, 한승남 광주우수협회장, 중앙경기단체 임원, 시교육청 정병석교육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클·세팍타크로·스쿼시·우슈쿵푸팀 창단식을 열었다.

팀창단은 시체육회가 학교체육 활성화 실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이번 창단식을 통해 한 학교에서 남자사이클, 남·여 세팍타크로, 남·여 스쿼시, 남·여



우슈쿵푸 등 4종목 7개팀이 한꺼번에 출범하는 성과를 거뒀다.

동일전자정보고는 광주체육중·고등학교를 제외한 최대 체육인재육성학교로 광주 학교체육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법원 앞에서 70m 번호시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번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국민시설/원룸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상가 김태호전무이사 010-684-3886 공장/토지 김한승이사 010-8033-0114

소지 대지/건물 김경기 최지자 비고

활동 대95.21(28) 129평 6호실 6층민자술집

증설 대73.21(22) 119평 5호실 2층오피스

증설 대43.21(25) 21평 9호실 5호실증

증설 대50.09(24)98 12호실 5호실 5호실증

증설 대45.21(25) 71호실 5호실 5호실증

증설 대45.21(25) 31호실 1호실 1호실증

증설 대45.21(25) 17호실 2호실 2호실증

증설 대45.21(25) 2호실 2호실 2호실증

증설 대45.21(25) 13호실 1호실 1호실증

증설 대45.21(25) 5호실 5호실 5호실증

증설 대45.21(25) 1호실 1호실 1호실증

증설 대45.21(25) 1호실 1호실 1호실증